

예수님의 시선으로 가족을 보기

마태복음 19:1-15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19-25장을 바탕으로 한 "왕국의 충돌" 설교 시리즈를 계속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22장을 다루었고, 오늘은 가족의 날을 위해 남겨두었던 19장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이란 긴 세월이 우리를 예수님의 지상 생활에서 갈라놓았지만, 그분의 탁월함은 이 모든 세기를 초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결혼, 독신, 그리고 자녀에 대한 그분의 시각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연령대, 모든 시대, 모든 문화에 지침을 제공합니다.

예수님은

- (1) 부부가 그분 안에서 하나 되도록 축복하시고,
- (2) 자녀들이 그분 안에 속하도록 축복하시고,
- (3) 독신자들이 그분과 하나 되기를 축복하십니다.

그 축복의 핵심은 그분 안에서, 그분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마태복음 19:1-15를 함께 읽도록 합시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갈릴리를 마지막으로 떠나 예루살렘을 향한 마지막 여정을 시작하십니다. 그 과정에서 요단강 건너편 페레아 지역에 들어가시는데, 그곳 사람들 사이에서 이미 그분의 명성이 퍼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셨습니다.

1절: "예수께서 이 말씀들을 마치시고" 는 어떤 말씀일까요?

18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 3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 4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마태복음 18:3-4).

어린아이처럼 겸손해지는 것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또 다른 말씀으로,

- 19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의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 20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18:19-20).

이는 하나 됨과 예수님의 임재가 보장되는 것에 관한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용서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형제를 몇 번 용서해야 합니까? 일곱 번입니까?"라고 묻습니다. 그는 자신이 매우 관대하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이르노니 일곱 번뿐 아니라 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라도 할지니라(마태복음 18:22).

겸손한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는 예수님의 말씀과 우리가 하나가 될 때 그분이 함께 계시다는 보장, 그리고 용서하고 회복하라는 그분의 강력한 격려를 기억하십시오.

이런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바리새인들의 질문은 놀랍습니다.

3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아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다른 번역은 “어떤 이유로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몇 주 전 저는 단골 이발소에 갔습니다. 안타깝게도 평소 제 머리를 자르던 사람이 고객들로 가득 차 있었고, 저는 기다릴 여유가 없었습니다. 새로운 이발사가 접수창구에서 "제가 해드릴게요!"라고 제안했습니다. 제가 앉자마자 그는 제가 거울을 등지게 하고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은 불안정해 보였고, 머리를 자르는 방식이 엉성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이거 잘 안될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무리가 끝난 후 거울을 보며 주며 맘에 드는지 물었는데 머리 왼쪽이 비스듬히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쳐달라고 할까?" 고민했지만 그러지 않기로 하고 그냥 감사하다고 하고 나왔습니다. 저를 아는 다른 이발사들이 슬쩍 웃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가 다듬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저 늦은 하루였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내는 제 머리를 만지던 중 더 큰 웨지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오늘을 이만하고 내일 다른 기회를 보자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 아내가 그녀의 미용사와 약속을 잡아주었습니다. 그 미용사는 제 머리를 보자마자 웃음을 터뜨리며 "누가 당신에게 이런 짓을 한 거예요?"라고 물었습니다. 아내가 제 머리를 잘못 잘랐다고 해서 이혼할 수 있을까요? 어떤 이유로든 이혼이 허용되어야 할까요? 머리 자르는 것이 아내의 강점은 아니지만, 그녀는 다른 많은 것들을 잘합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이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당시 바리새인들 사이에서 이혼은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의 집단 중 하나인 힐렐 학파에서는 아내가 양고기를 태웠거나, 더 매력적인 여자를 찾았다는 이유로 남편이 이혼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당시에는 남편만 이혼을 요구할 수 있었고, 여성에게는 그런 권리가 없었습니다. 즉, 남성들이 어린아이처럼 행동해도 처벌받지 않고 용인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답을 하시든, 누군가는 분노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혼에 대한 견해가 매우 보수적인 사람들과 매우 자유로운 사람들 사이에 뒤섞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사이에 분열을 일으키려 했던 것일까요?

얼마 떨어지지 않은 페레아 지역에는 헤롯 안티파스와 그의 아내 헤로디아스의 요새인 마케루스 요새가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들의 간음, 이혼, 재혼을 비판하다가 이 요새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는 복잡하고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그들의 이혼과 재혼을 비판하여 그 말이 헤로디아스의 귀에 들어가게 하려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후 예수님도 세례 요한과 같은 운명을 겪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자녀, 하나 됨, 용서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비추어 보면, 바리새인들의 질문은 매우 불편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결혼은 단순히 사회적 계약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용서하고 화해하는 방법이나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자녀들을 보호하는 방법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떤 이유로든 이혼하는 것이 괜찮은지 물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4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창세기 1:28)

5.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창세기 2:24)

6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이혼 논쟁에 휘말리지 않으시고, 결혼의 기원으로 돌아가십니다. 인간 존재의 기초로 돌아가셨고, 그렇게 할 때 그 기초에서 모든 것을 설계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곳입니다.

결혼을 이해하고 싶다면, 이혼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할 수 없습니다. 캐나다 사회에서의 일반적인 관행이나 여러 사람을 한 번에 사랑하는 폴리아모리 대한 최신 기사를 근거로 시작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결혼을 설계하신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결혼을 생각하는 학생, 청년, 성인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결혼한 성인에게는 기초가 됩니다.

결혼은 결코 우리의 인간적 구성물이 아니며 인간의 판타지와 번덕에 따라 조정하고 재정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결혼을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어 평생 지속되는 연합으로 설계하셨습니다. 그 연합은 그분의 영에 따라 거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축복하십니다...

1. 부부가 그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한 몸”은 분명히 성적인 연합을 의미합니다. 결혼하는 순간, 남자와 여자는 다른 어떤 인간관계에서도 속하지 않는 신비로운 연합을 경험합니다. 다른 관계와 달리 결혼은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 됨과 영속성을 반영하도록 설계하셨습니다.

결혼이라는 연합은 하나님에 대한 최고의 존경과 경외심을 가지고 대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면, 존중받아야 할 이상이 있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이 되어 (배타적이고, 사랑이 넘치며, 영구적인 관계를 맺고) 자녀가 속할 수 있는 사랑이 가득한 가정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그 이상입니다.

이제, 이것이 현재 캐나다 사회에서 매우 논쟁이 되는 주제임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성적 활동이 사랑이 있든 없든, 헌신적이든 그렇지 않든, 두 사람의 합의에 의한 영역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폴리아모리가 증가하고 있으며, 결혼은 평생 지속될 수도, 일정 기간만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합법적 결혼이나 사실혼 관계, 동성 혹은 이성 간의 결혼, 한 배우자 혹은 여러 배우자와의 관계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정서적 욕구, 육체적 욕망, 그리고 유동적인 정체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믿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서 “결혼의 이상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선언합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크게 잘못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연구 결과에 따르면 결혼 전 동거하는 것은 실제로 영구적이고 지속적인 결혼 서약을 약화시킨다고 밝혀졌습니다. 자유로운 성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가장 만족스러운 성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일부일처제 이상 결혼을 한 부부라는 것이 연구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마지막으로 할리우드 영화에서 그런 메시지를 설교하는 것을 본 게 언제였나요?

우리 인간이 결혼 생활을 더 쉽게 만들거나 개선하고자 내놓은 해결책들은 사실 상황을 더욱 악화시킵니다. 우리가 깨어진 세상 속에서, 깨어진 결혼과 깨어진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가 이상을 바꿔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결혼과 가정에 대한 이상이 없다면, 이 모든 말들은 그 의미를 잃게 됩니다.

사탄은 우리가 결혼이나 가족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다고 믿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는 전통적인 결혼과 가족의 개념이 억압적인 사회적 구조에 불과하며, 이것들이 우리를 자유롭게 사는 것을 방해한다고 설득하려 합니다. 사탄의 최종 목표는 결혼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결혼이 무너지면 가족이 무너지고, 가족이 무너지면 아이들이 무너집니다. 아이들이 무너지면 다음 세대와 그다음 세대가 파괴됩니다. 그러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고립되고 홀로 남게 됩니다.

사탄이 왜 이것에 이렇게 집착할까요? 만약 이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다면, 사랑 자체를 완전히 파괴할 수도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랑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더럽히게 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쉬운 이혼에 대한 대화를 하러 왔습니다. 누가 그들에게 영감을 주었을까요? 의심할 여지없이 거짓의 아버지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을 우회하여 하나님의 핵심으로 바로 나아가십니다. 결혼은 결코 단순한 인간의 합의(사회 계약, 일시적 연합, 또는 인간 편의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결혼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직접 남자와 여자를 엮으신 관계였습니다. 결혼이라는 연합은 인류의 본질에 구조적으로 포함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신성하게 제정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에 반할 때는 그때마다 고통을 겪습니다. 혼전 성관계는 해롭고, 간음은 파멸적이며, 매춘은 파괴적입니다. 우리 인간의 본질에 관해서는, 더 많이 연합하고 분리할수록 지속적인 하나됨을 유지할 능력이 더 줄어들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어느 정도 성적 깨어짐을 경험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모두 상처받은 존재일까요? 이사야 선지자가 묘사한 예수님의 사역을 기억합시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화관을 주어 그 재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사야 61)

예수님은 우리의 치유와 회복에 헌신하셨으며, 성적인 상처와 깨짐의 문제도 포함됩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대답하실 때, 그분은 인간 존재의 근본으로 돌아가십니다. 독신인 두 사람이 부모를 떠나 서로 결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기혼자들과 그들의 부모는 이 "떠남과 결합"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배우자가 여전히 친정이나 본가와 더 깊이 얽혀 있고 배우자보다 우선시할 때, 결혼 관계는 긴장 상태가 되고 자녀가 고통을 받게 됩니다. 결혼 관계는 모든 이전의 관계보다 우선해야 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아이들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결혼을 소중히 여기시는 이유 중 하나는 아이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축복하십니다...

2. 자녀들이 그분 안에 속하도록

이반과 클레어(이안과 아이린), 예수님이 바라시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가 되어 자녀들이 안정적인 관계 속에서 자라나고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관계는 하나님께서 우선이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룿(나다니엘)가

예수님께로 이끌리게 되는 관계입니다. 또한 여성이(혹은 남성이) 삶 속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을 본보기로 보여주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자녀들은 깊이, 소중히 여겨집니다.

시편 127:3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와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예수님 시대에 아이들을 랍비에게 데려가 축복을 받게 하는 것은 흔한 일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을 보시면

13 그 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14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제자들이 왜 부모들을 책망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께 더 중요한 일이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아이들이 완전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슬프게도, 로마 제국에서는 아이들이 종종 인간 이하로 취급되곤 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아이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로 보셨습니다. 아이들에 대한 그분의 급진적인 관점은 초기 기독교인들에게 깊은 영감을 주었고, 그들은 자신들의 자녀뿐만 아니라 버려진 아기들을 구하는 일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가족으로서 우리는 예수님의 본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환영하고, 사랑하며, 가르치고, 제자 삼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제자 삼으려 할 때 그들의 부모인 여러분을 모든 면에서 돕기를 원합니다.

가정을 위한 기도. 부모님께 카드 전달. 아이들에게로 시선을 돌림.

어린이 여러분이 제 사무실에 온다면 무엇을 보여줄지 아시나요? 제 축구공, 노란색 폭스바겐, 그리고 나무로 만든 오토바이를 보여줄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장난감을 가지고 놀았을까요? 아마도 그는 아버지 요셉이 만들어주신 가장 좋아하는 나무 장난감에 대해 아이들에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나무 장난감 상자와 장난감 동물). 예수님도 아이였을 때 장난감 동물, 호루라기, 딸랑이 같은 것으로 놀았을 것입니다.

부모님과 산책을 해본 적이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얼마나 멀리 갔는지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도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 걸어간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했을지도 모릅니다(약 5일 걸리는 거리). 5일 동안 견고 탐험하는 것을 상상할 수 있나요?

제가 6살 때, 1km를 걸어서 식료품점에 가서 오렌지 크러쉬 한 병을 5센트에 사고 오 헨리 바를 10센트에 샀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탕을 먹었을까요? 꿀, 건포도, 견과류였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분은 아이들에게 가장 좋아하는 사탕에 대해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그분의 왕국이 아이들, 여러분 같은 사람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겸손하기 때문입니다)
- 새로운 것에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바리새인처럼 마음이 굳지 않습니다)

- 궁금해하고 호기심이 많기 때문입니다
- 믿음이 강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 제가 이야기 하나를 나누겠습니다. 얼마 전 손자가 성경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나일강에 던져 강물이 붉게 변하는 이야기였죠. 그는 너무 신이 났습니다. 속옷만 입고 계단을 내려가 부츠를 신고 눈 속으로 달려가 막대기를 집어 들고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와 욕조 물에 막대기를 던졌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물이 왜 색깔이 변하지 않았는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이 마법이 아니라는 것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해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도요.

오늘의 요점은 예수님이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아이들에게 손을 얹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가족도 여러분을 사랑하며 두 팔 벌려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에게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것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도,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자, 다시 바리새인들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들은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원래 의도로 되돌리십니다. 그들은 어린아이들처럼 자신을 낮추기보다는 또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마태복음 19:7

먼저, 모세는 결코 명령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신명기 24장에서 이혼에 대한 규정을 마련했으며, 그 규정은 남녀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를 왜곡하여 쉬운 이혼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보십시오

- 8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 9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 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이혼은 항상 누군가가 사랑을 완악함으로 대체했다는 증거입니다. 모든 이혼의 경우, 사람들은 "화해할 수 없는 차이"에 집중하지만, 그들이 집중해야 할 것은 용서와 화해입니다. 하나님이 연합하신 것을 우리가 되돌리려 하면, 그에 따른 심각한 결과를 겪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회복의 희망이 없는 경우에 대해 이혼을 은혜롭게 허용하십니다. 예수님은 배신당한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해 "음행"이 있을 경우 이혼을 허용하십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혼을 겪으셨다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신다는 것을 아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의 보호와 회복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교회 가족으로서 우리는 여러분의 보호를 위해 기도하며 회복을 위해 기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신 것처럼 우리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왜 예수님은 결혼 불륜이 있을 경우 이혼을 허락하실까요? 그것은 간음이 "한 몸"의 결합을 더럽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이혼 후 재혼이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오히려 결혼의 본래 목적, 그 영속성 및 신성함을 주장하십니다.

제가 Judy와 결혼했을 때, 한 할아버지로부터 지혜로운 조언을 받았습니다. “결혼 전에는 네 여자친구나 약혼자가 올바른 사람인지 자문하지만, 결혼 후에는 그녀를 올바른 사람으로 만들어라. 더 중요한 것은, 네가 그녀에게 올바른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목표는 결혼 관계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아내나 남편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번성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분이 결혼에 대해 가르치는 것을 듣고 어리둥절해합니다.

10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 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대

왜 평생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게 되는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까? 결혼 생활이 어렵고 별거에 대한 조치가 없다면 어떻게 할까요?

11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제자들의 말인 “결혼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에 대해 하신 말씀입니다. 4-9절에서 결혼에 대한 그분의 가르침을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선물로 주어졌지만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12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일부 사람들은 선천적인 결함으로 인해 성적 관계를 가질 수 없습니다. 또 일부는 왕의 후궁을 지키는 일을 위해 거세당한 사람들도 있습니다(이는 고대 세계에서 흔히 있었던 관행이었지만 이스라엘 내에서는 없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목적에 완전히 헌신하기 위해 결혼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축복하십니다.

3. 독신자들이 그분과 하나가 되도록 축복하심

저는 예수님께서 그분과 하나 된 독신자들에게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예수님, 세례 요한, 그리고 바울은 결코 그들이 독신이어서 부족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부르심을 온전히 살아가며 성령의 인도에 신속하게 반응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진 온전한 인간들이었습니다.

독신자는 바울과 같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빌립보서 1:21) 그들은 온전한 헌신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의 부름과 은사를 받아들이고, 기쁨으로 그들 앞에 있는 경주를 달릴 수 있습니다(히브리서 12장; 고린도전서 7장).

예수님은 독신을 결혼 생활보다 우위에 두지 않으시지만, 독신자에게 주어진 은혜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독신의 의미 있는 목적을 인정하십니다. 또한, 독신자들은 영적인 가족의 완전한 구성원이며, 많은 영적인 아버지와 어머니, 형제와 자매, 영적 자녀들과 함께합니다. 독신자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의 가족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시선으로 가족을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 부부가 그분 안에서 하나 되도록 축복하시고, 자녀들이 그분 안에 속하게 되도록 축복하시며, 독신자들이 그분과 하나 되도록 축복하신다는 것을 봅니다. 모든 것은 그분 안에, 그분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삶은 예수님과의 하나 됨에서 발견됩니다.